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참좋은사람들에 성금 전달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21일 정읍 수성근린공원에서 (사)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에 지역사랑성금 400만 원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좋은사람들사랑나눔공동체는 공원 등에서 연중 무료급식을 운영하며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이들 공동체가 전북은행에 제안해 선정된 '어르신이 행복한 힐링 웃음 한 끼' 사업은 무료급식 대상자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이다. 이번 후원으로 공동체는 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3~4회 실시하는 무료급식 행사에서 노래교실, 실버체조 등 웃음치료 강좌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행복이 증진되는 다양한 웃음치료 강좌가 더해져 무료급식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사업과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정환 기자

전주대, 유학생 바이로그 공모전
시상식...대상 '중국 출신' 학생

전주대학교는 지난 20일 국제교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 바이로그(V-Log)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유학생들이 전주대에서 보낸 일상과 감정을 바이로그 형식으로 기록해 공유하도록 기획됐다. 총 50여 명의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대상은 중국 출신 학생(일반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이 수상했다. 금상은 미얀마의 테라사 제 사이, 은상은 베트남의 응웬티쭈·짚후호영, 장려상은 네 팔의 타망주나 외 11명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자 바이로그 상영도 함께 진행됐다. 전주대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SNS 기반 바이로그 콘텐츠를 통해 유학생들의 삶이 있는 일상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유학생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콘테스트는 해외 홍보에도 활용돼 전주 유학하기 좋은 도시라는 점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상자 영상은 대학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송미령 기자

정읍소방, 하립 정읍공장
안전관리 종합 점검 실시

정읍소방서(서장 이상일)가 지난 19일 중점관리 대상인 (주)하립 정읍공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증가하는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공장의 소방활동 현황 청취에 이어 주요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또한 자위소방대 운영, 초기 대응체계, 직원 화재 대피 교육·훈련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하립 정읍공장이 과거 화재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공장 내 위험 요인과 화재 시 전술적 대응 방향을 관계자와 함께 검토했다. 이상일 서장은 "공장 시설은 한 번의 화재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조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영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손명엽 해병대전우회장
전쟁영웅 故 문광욱 일병 추모

포커스
연평도 포격전 15주년 맞아
공헌·송고한 희생정신 기려
"깊은 감동·존경으로 기억"

강임준 군산시장과 손명엽 군산해병대전우회장이 22일 연평도 포격전 전쟁영웅 故 문광욱 일병을 추모했다. 이번 추모는 연평도 포격전 15주년을 맞아 문 일병의 희생을 기리고, 군산시민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강임준 시장과 손명엽 해병대전우회장은 흥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진행하며 문 일병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문광욱 일병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조국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군산 출신 해병대 장



강임준 군산시장과 손명엽 군산해병대전우회장이 전쟁영웅 故 문광욱 일병을 추모했다.

병이다. 스무 살의 젊은 나이에 보여준 그의 희생정신은 지금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존경으로 기억되고 있다. 손명엽 해병대전우회장은 "연평도 포격전 전쟁영웅인 故 문광욱 일병의 송고한 희생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나라사랑 정신을 후대에 잘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을 지속 추진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 기자



전주서원시니어클럽, 2025 노인공익활동사업 평가회

전주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지난 21일 전주시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5년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평가회 2차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서는 2025년 사업 추진 방향, 교육 과정 및 안전관리 안내, 참여자 격려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운철 전주시 복지환경위원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옥 관장은 "내년에도 더 나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시장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과 사회활동을 위해 복지 안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전북인자위, 내년도 산업인력양성 로드맵 확정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1일 제5차 분위원회회를 열고, 내년도 인력양성 사업 방향을 확정해 운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전북경진원 윤여봉 원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등 지자체·산업계·학계·유관기관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책의 핵심인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과 '2026년 사업계획(안)'을 집중 검토했다. 훈련과정은 기존 56개에서 72개로 16개가 증가하고, 훈련 목표인원은 1389명에서 2219명으로 230명이 확대된다. 공동훈련센터 예산도 약 20억원에서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윤여봉 공동위원장은 "내년에는 보다 정교한 수요 조사와 훈련 공급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정환 기자

원광대·베트남 예르생 달랏대, 통합의학 협력 MOU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베트남 예르생 달랏대학교가 통합의학·교육·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양국 전통의학·간호·보건·의료기술 전문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가 연수를 개최하며 국제협력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7일 예르생대 미디어실에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19일에 '2025 원광 의생명 통합의료 전문가 연수: 통합의학으로 베트남과 한국을 잇다'가 진행됐다. 양교는 MOU를 통해 의학·한의학·간호교육·정밀의료기기 등 통합의료 분야 연계를 비롯해 지속적인 교류 체계 구축 및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식화했다. 익산=정영만 기자



전북 전기공사협회, 제31차 기술자문위원회 열어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20일 제31차 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경수 위원장(전북대 교수)을 비롯한 기술자문위원과 이재수 협회장, 집행부 등 약 20명이 참석해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와 행사 일정을 공유했다. 국경수 위원장은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관련 정책·기술 동향과 지역 참여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전기공사협회 이재수 회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ESS 구축사업 참여 등 미래의 전기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산·학·관이 적극 참여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소정환 기자



전주시 소상공인의 날 10주년 기념식 성황리 마무리

전주시 주최하고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북본부 등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관 관계자와 내빈,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차원에서 전주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어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소상공인 정책 지원에 힘써 온 신유정·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유장명 회장은 "전주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협력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전북교육청, 24~28일 '민원 주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민원의 날(11월 24일)에 맞춰 24일부터 28일까지 민원 주간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 담당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민원 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민원 주간 동안 고객지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상호 존중 문구가 적힌 홍보물과 간식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 이벤트와 민원 담당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27~28일에는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민원 담당자 75명 대상 힐링 연수를 진행한다. 송미령 기자



전북교육기록연구협, 기록행정 전문성 강화 역할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 15명으로 구성된 '전북교육기록연구협의회'가 교육 분야 기록행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논의의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2025년 제6차 전북교육기록연구협의회를 열고 중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내년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교육기록연구협의회는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두 가지 중점 연구과제를 공동 추진했다. 첫 번째는 '사립유치원 기록관리 안내서 제작'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관리 기준이 부족했던 사립유치원의 기록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학교 단위 과제별 기록물 생산·등록 세부기준 수립으로, 기록물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전북교육기록연구협의회 운영으로 기록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학교 현장의 기록관리 역량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확대해 전북교육 기록행정의 표준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기자



농협중앙회 임실지부·임실농협·NH농촌봉사단
지역 내 취약농가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재문)와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은 20일 NH농촌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심천심문동의 일환으로 이재문 지부장을 비롯한 최동선 조합장, 직원, 봉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된 싱크대 교체와 주거환경 점검 등이 이뤄졌다. 농협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농업인행복센터를 통해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재문 지부장은 "농심천심문동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선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문홍철 기자



전북 여성경제인협회, 전주시장 간담회 가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전주시는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여성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전주시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인재 부족, 여성기업의 수익계약 관련 제도적 애로, 판로 확대 및 정책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과 지자체 차원의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경제의 동력"이라며 맞춤형 인재 양성 정책과 기업·지역사회 연계 확대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 시장은 지역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한 교육·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강화 의지도 표명했다.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소정미 회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도 여성기업이 지역경제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정환 기자